

SPECIAL REPORT

2020년 8월

미중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로 발전하여 평화로운 국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사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동 아 시 아 연 구 원

©2020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EAI Special Report

미중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I:
경제갈등의 4대 핫스팟(hotspot)

**미중 5G 경쟁 2.0 과 한국:
다변화 전략과 중견국 외교**

2020. 8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중 5G 경쟁의 국면 전환

미중 5G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미중 5G 경쟁 동학의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화웨이 전략의 재구성, 중국의 공세적 외교, 주요국에서 중국 경제론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미중 5G 경쟁 2.0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견제를 점진적으로 체계화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하였으나,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의 반발과 화웨이 견제를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는 등 상당한 허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한편, 미국 기업과 외국 정부에 희생과 일방적 동참을 요구하던 데서 탈피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경제 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는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기업과 우방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 사슬의 형성을 제시하는 등 국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전략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변화의 단초는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서도 만들어졌다. 홍콩 보안법 통과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보여준 강경한 정책,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중국 체제의 문제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마스크 외교(mask diplomacy)’는 일정한 성과 못지않게, 한계와 문제를 드러냈다. 일련의 사태 전개 과정에서 중국이 주요국들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미중 5G 경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중국 경제론이 화웨이 장비의 리스크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산하였다. 이처럼 2020년 상반기 이후 미중 5G 경쟁에는 새로운 변화의 동학이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미중 5G 경쟁 2.0’이라고 할 수 있다. 미중 5G 경쟁 2.0은 5G 경쟁이 지구화되는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기존 미중 중심의 5G 경쟁 1.0과 차별화된다. 5G 경쟁 1.0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반 화웨이 전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 협력을 추구했으나, 국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5G 경쟁 2.0에서는 영국, 독일, 인도 등 주요국들이 5G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전환하거나 그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5G 경쟁이 본격적으로 지구화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반 화웨이 전선에 동참하라는 일방적으로 압박하던 공세적 접근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 글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화웨이 전략의 변화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5G 경쟁의 새로운 동학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5G 경쟁 2.0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 국제적·국내적 배경을 검토하고, 미국과 중국의 5G 전략을 고찰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미중 5G 경쟁 2.0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은 미중 5G 경쟁과 관련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이는 미중 미래 경쟁력의 관건일 뿐 아니라 안보적 영향력이 지대한 5G 경쟁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한편, 미중 5G 경쟁이 2.0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중 5G 경쟁 2.0의 핵심은 공급 사슬의 재편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의 확대이다. 한국은 공급 사슬의 재편, 더 나아가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중견국 외교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화웨이 제재 강화

2019년 5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화웨이를 ‘거래제한명단(Entity List)’에 포함함으로써 정부 승인 없이 미국 기술을 화웨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구글은 이에 따라 앱과 서비스 제공을 화웨이의 기존 스마트폰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임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화웨이와 거래를 하는 것이 완전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약 6개월 후인 2019년 11월부터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반도체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5월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화웨이를 견제하는 기존 조치의 허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Whalen 2020). 이 조치는 미국 기업은 물론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조치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제재 강도를 높인 화웨이의 5G 공급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황의 전개이다. 이 조치로 인해 미국 핵심 기술과 부품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경우, 화웨이는 5G 장비 생산과 설치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Pham 2020).

2020년 5월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트럼프 행정부는 역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 제품의 홍콩 수출을 금지하였다. 더 나아가 2020년 6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광대역 보조금을 금지했다(McCabe 2020). 이번 결정은 FCC가 2019년 안보 위협이 되는 통신 장비 제조사가 인터넷 접근성이 낙후된 지역에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 지원을 금지한 데 이어 취해진 후속 조치이다.

2020년 5월 미국의 제재 조치는 미국 장비를 사용하여 반도체를 제조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고강도라는 점에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핵심 부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즉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경우,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 조치로 인해 화웨이가 의존하고 있는 TSMC 등 반도체 칩셋(semiconductor chipsets)과 기타 부품 제조 기업들이 화웨이에 납품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빠르면 2021년부터 화웨이는 5G 기지국 설치와 5G 장비 공급에 있어 막대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만일 화웨이가 5G 장비 공급을 위한 대안의 발굴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5G 장비 공급자로서 화웨이의 신뢰도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경제론 확산과 미중 5G 경쟁

2020년 중국 경제론이 확산되면서 유럽과 인도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8년 5월 미 국방부가 군사 기지에서 화웨이와 ZTE 폰 사용을 금지하고 중국산 장비의 안보 위협을 제기함으로써 미중 5G 경쟁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더 나아가 5G 경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우방국들을 반 화웨이 전선에 끌어들이는 전략을 함께 구사하였다. 2019년 2월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반 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9년 3월 미국은 독일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 공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우방국들에 요청을 넘어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유럽 우방국들을 넘어 파이프 아이즈,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로 반 화웨이 전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5G 경쟁이 미중 전략 경쟁의 상징으로 전환된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반 화웨이 전선의 외연 확장에 있어 상당한 한계를 드러냈다. 일본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등이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는 우방국들로부터 기대한 만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202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화웨이는 유럽에서 5G 네트워크 구축 계약을 잇달아 수주하는 등 미국 정부의 반 화웨이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에 이르렀다(Sanger and McCabe 2020).

그러나 2020년 미중 5G 경쟁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중국 경제론의 대두와 5G 경쟁의 변화는 영국에서 먼저 나타났다. 2020년 1월 영국 정부는 화웨이가 핵심 분야를 제외한 5G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되, 전체 점유율을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

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 영국이 중국과 홍콩 문제로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영국 정부는 화웨이 5G 장비 사용 문제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정부는 2020년 5월 5G 핵심 장비를 제외하고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결정을 반복하는 과정에 돌입하였다 (Malnick 2020). 2020년 6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최대 3백만 명의 홍콩인에게 사실상의 망명을 허용할 것을 시사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 결과 영국 정부는 화웨이의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물론, 영국 내에 이미 설치된 화웨이 장비를 6개월 이내에 제거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영국 정부의 결정에는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영국과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대한 고려도 작용하였다.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국가들이 화웨이 배제 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영국 정부의 결정은 프랑스 및 독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영국 정부가 화웨이 5G 장비 배제를 공식 결정할 경우 프랑스 및 독일 등 다른 미칠 파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화웨이는 영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강온 양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도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거나 적어도 핵심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메르켈(Merkel) 정부는 5G 보안 기준을 완화하여 화웨이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는 조치를 취하였다. 메르켈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화웨이 배제가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독일 자동차 산업과 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과이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바스프(BASF) 등은 화웨이 배제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펼쳤다. 그러나 메르켈 정부의 보안 기준 완화에 대하여 독일 전 환경부 장관이자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노르베르트 뢰트겐(Norbert Röttgen)이 이끄는 초당적 연합과 독일 정보 당국이 화웨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메르켈 정부의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의 의원들과 외교장관 마스도 비판의 대열에 동참하였다. 이어 메르켈의 후임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민당의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 국방장관이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을 포함시키는 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독일에서 화웨이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메르켈 정부는 하원에 5G 공급자에 대한 보안 기준 강화에 대한 거부권을 하원에 부여하고, 외국의 영향을 받는 공급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포함한 발의안을 지지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뢰트겐 등은 이 법안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화웨이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독일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개월이 더 걸리겠지만, 독일에서의 사태 전개는 유럽에서 화웨이의 입지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다(Barkin 2019).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메르켈 정부의 정책의 전환을 의미할 뿐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독일과 중국, 더 나아가 유럽-중국 관계의 전반적인 재조정을 수반할 수 있다.

인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2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중국-인도 국경 분쟁 이후 화웨이 참여를 금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0년 6월 인도 정부는 국가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을 포함한 중국 어플리케이션 59개를 차단하였다. 화웨이의 인도 5G 네트워크 참여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이 자행하는 감시 국가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화웨이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중국 경제론이 확산되고 미국의 화웨이 견제 전략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다(Kharpal 2020).

2020년 5월 기준 체코,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덴마크, 그리스, 뉴질랜드, 일본, 호주, 대만, 이스라엘, 알바니아, 라트비아가 이미 5G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화웨이 대신 에릭슨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0; Pompeo 2020). 미국은 특히 프랑스의 Orange, 인도의 Jio, 호주의 Telstra, 한국의 SK와 KT, 일본의 NTT, 영국의 O2 등 주요국의 거대 통신 서비스 업체들과 캐나다의 3대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각각 에릭슨, 노키아, 삼성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반 화웨이 전선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0).

5G 경쟁과 코로나19의 국제정치

반전의 계기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론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통계의 정확성, 코로나19 관리의 투명성, 더 나아가 코로나19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국 체제의 과도한 감시와 통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럽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에게 마스크 외교를 펼쳤으나, 마스크를 포함, 수준 미달의 의료품들이 제공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방위적으로 시행된 모니터링과 감시 체제는 유럽 상당수 국가에서 화웨이가 디스토피아적 감시에 일조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초래하였고, 반 화웨이를 주장하는 진영의 입지를 강화하였다.¹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공세적 외교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였다. 홍콩 시위의 강경 진압, 신장 지역의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인도와 국경 분쟁, 남중국해 긴장 고조 등 중국의 강경한 외교적 드라이브가 주요국들 내에서 중국 경제론이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중국의 강경 외교는 유럽 주요국들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독일은 신장 지역 위구르 소수 민족 문제와 홍콩 시위 등으로 중국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였다. 중국 당국이 독일 외무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가 홍콩 민주주의 행동가 조슈아 왕(Joshua Wong)과 회동한 데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양자 회담을 취소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 태생 스웨덴 작가 ‘구이민하이’(桂敏海)에 언론의 자유상을 수여할 경우 응분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중국의 강경 외교는 중국 외교 정책에 대한 순응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유럽에서 중국 경제론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 경제론이 화웨이의 5G 장비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미국은 이를 화웨이에 대한 경계를 증폭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미국은 코로나19와 관련, 중국 정부의 행태를 본질적으로 ‘은폐, 선별, 강제’로 규정한다. 더 나아가 5G는 감시 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토대이며, 그 중심에 화웨이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응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하반기까지 외견상 미국의 공세가 화웨이에 가시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우선, 화웨이는 악조건 속에서도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초까지 91건의 5G 계약을 성사시키고 5G 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제재 조치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3분기 기준 주요 통신 장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 31.2%, 에릭슨 25.2%, 노키아 18.9%, 삼성전자 15%로 나타났다(“삼성전자, 5G 장비 4위...유럽 뚫은 화웨이는 다시 1위” 2020/2/5).²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퇴출되었음에도 이러한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화웨이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47건과 27건의 계약을 각각 수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이동통신 인프라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 28%, 에릭슨 27%, 노키아 23%이다. 현재까지 체결된 239건의 기업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 38%, 에릭슨 34%, 노키아 28%이다(<그림 1> 참조). 실제로 미국의 반화웨이 공세 속에서도 에릭슨이 화웨이를 대체한 사례가 1~2건에 불과하고, 노키아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orel 2020).³ 4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이미 우위를 확보한 화웨이가 초기 5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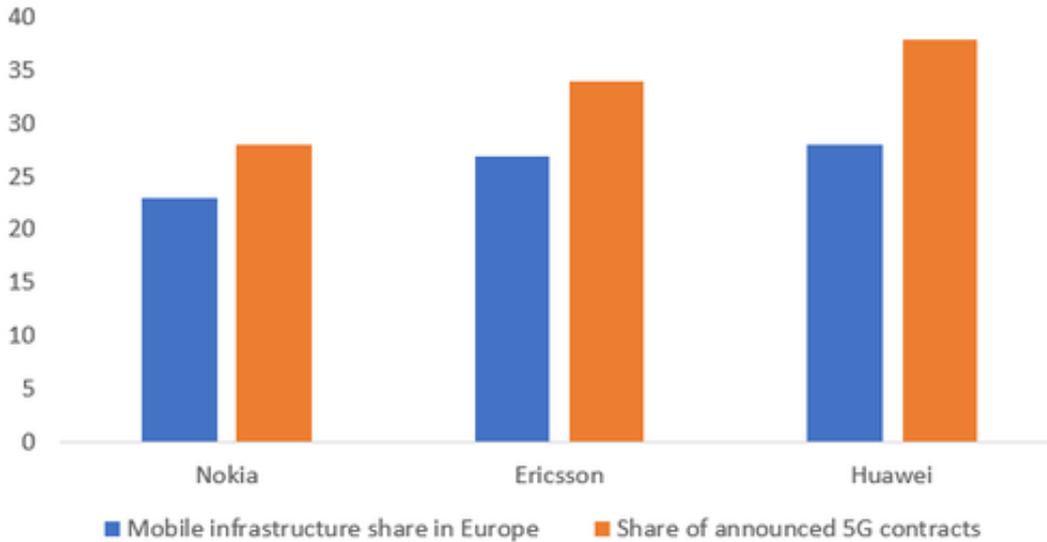
¹ 2019년 3월 EU는 중국을 ‘시스템 경쟁자’(systemic rival)로 규정한 이래, 해외 투자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9).

² 삼성전자는 2018년 한국과 미국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세계 시장 점유율을 37.8%까지 높였으나, 이후 1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삼성전자, 5G 장비 4위...유럽 뚫은 화웨이는 다시 1위” 2020/2/5).

³ 미국의 반화웨이 공세와 중국 경제론의 영향을 간접적으로나마 추론하기 위해서는 기존 4G 공급자에서 새로운 5G 공

통신 장비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다.⁴ 통신 장비 시장 경쟁은 단독 모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020년부터이며, 미국이 화웨이 배제 전략의 수위를 높인 것도 이러한 시장 상황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분기까지 미국의 반 화웨이 공세를 위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이 화웨이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견제를 위해 외국 정부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그림 1> 주요 통신 장비 기업의 시장 점유율(통신 인프라와 5G 수주 비율 비교)



출처: (Lore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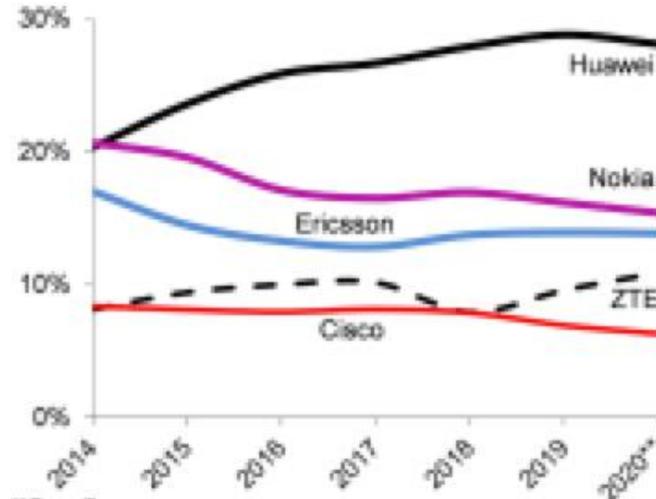
그러나 제재의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사 스마트폰 신 모델에 구글 앱을 탑재하지 못한 채 출시해야 하는 등 2019년 하반기부터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조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화웨이 핸드폰에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결정만으로도 2019년 기준 화웨이 핸드폰 매출을 약 100억 달러 감소시킨 것으로 추산된다(Morris 2020). 미국 장비와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화웨이에게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결정은 이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화웨이에게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는 5G용 칩, 서버 프로세서 등 TSMC로부터 2019년 기준 52억 달러를 구매하였는데, TSMC와 거래가 중단될 경우 부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신 장비 시장 전체로 확대하면, 화웨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9년 약 30%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28%로 감소하였다. 반면,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16%, 에릭슨은 전년과 같은 14%를 기록하였다. 이밖에 ZTE와 Cisco가 각각 10%와 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결과만 보면, 화웨이와 ZTE는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에 커다란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시장 점유율의 증가 속도는 감소하였다(<그림 2> 참조).

급자로 전환된 수치인 ‘가중 5G 수주 비율’(weighted 5G win rate)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100%는 기존 통신 서비스 기업이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자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키아의 경우 2019년 이 수치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100%, 중국을 포함할 경우 90% 중반을 기록하였다(Lorel 2020). 이는 노키아가 미국의 반화웨이 공세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⁴ 데이터에 따라서는 4G 인프라의 경우, 중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60%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초기 5G 시장에서 화웨이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Lorel 2019).

<그림 2> 제조사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2014~2020)



출처: Minga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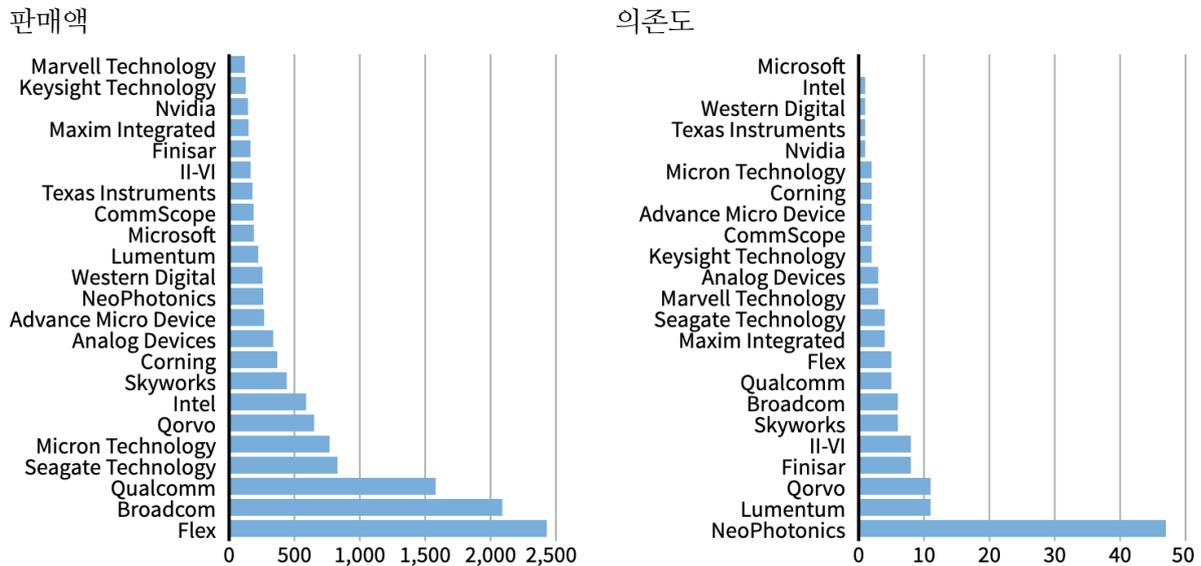
무엇보다 미국의 견제 전략이 화웨이에 대한 신뢰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진적이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 텔리아(Telia Norway), 덴마크 TDC, 영국 BT 등이 화웨이 대신 에릭슨 등을 선택하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보다폰(Vodafone) 역시 유럽 전역의 핵심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약 2억 유로를 지출하고 있다. 다만 보다폰과 도이치 텔레콤(Deutsche Telekom) 등은 화웨이 장비의 대체를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가운데, 공급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對) 화웨이 전략의 지속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하여 고강도 제재 조치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는 국내적으로는 미국 기업, 대외적으로는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유지·확대할 수 있을 것인 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미국의 제재 조치 강화는 미국 기업에 대안을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화웨이가 반도체를 비롯하여 부품의 약 1/3을 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기업들에 일차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18년 기준 화웨이의 부품 조달 규모는 약 700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중국 내에서 약 30%를 조달하였다. 특히 화웨이의 부품 및 기술 구매에서 마이크론(Micron Technologies), 퀄컴(Qualcomm), 퀴보(Qorvo), 스카이워크스(Skyworks Solutions) 등 미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금액 기준으로는 약 110억 달러에 달한다.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기업들은 20여 개가 넘는다. 전체 매출액 대비 화웨이 비중을 기준으로 하면, 네오포토닉스(NeoPhotonics)는 40%가 넘는 매출을 화웨이로부터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루멘텀(Lumentum)과 퀴르보(Qorvo) 등은 화웨이 매출 비중이 10%를 넘는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명확하다(Jiang and Martina 2019). 화웨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전면 거래 중단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단계별 거래 축소와 중단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기업의 고충을 감안하여, 미 상무부는 9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특히 제재의 충격이 큰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미국 기업들의 사정을 반영한 결과이다(Bajak 2019).

<그림 3> 화웨이 부품 공급 기업



출처: Jiang and Martina(2019).

둘째, 애플 및 퀄컴과 같은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주요 시장 가운데 하나인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애플은 생산 공정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보복 결정이 아니더라도 중국 소비자의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애플의 중국 매출은 2015년 587억 달러로 정점에 도달한 후 연평균 6%씩 매출이 감소하여 2019년 437억 달러까지 하락하였다.⁵ 이러한 감소 추세에 더하여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애플의 매출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아이폰의 경우, 2019년 1분기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8.6%에서 2020년 1분기 3.4%까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급도를 높이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기술과 첨단산업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급도를 높이려는 것이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 2020)의 목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중국제조 2025>를 촉진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Bajak 2019). 인공위성산업의 경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으나, 미국 기업을 우회하는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미국 기업들 중에는 5G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업들이 있다. 2020년 8월 퀄컴이 화웨이의 5G 폰에 필요한 칩(Chip)을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로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퀄컴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화웨이는 궁극적으로 부품을 확보할 것이며, 퀄컴은 8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 손실만 기록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화웨이 전략에 대한 미국 기업 입장의 일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Fitch and O’Keeffe 2020).

화웨이의 대응 전략

현재까지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화웨이의 대응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왔다. 첫째, 화웨이는 미

⁵ 이 수치는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것임(Richer 2020).

국의 제재 조치가 자사뿐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반발하는 한편, 미국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였다. 둘째, 화웨이와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미국의 반 화웨이 전선을 균열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셋째, 화웨이는 공급망의 교란에 대비하여 재고를 확충하고 부품의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화웨이는 1단계에서는 핵심 부품의 재고를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으나, 미국 정부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이를 12개월로, 다시 24개월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Jiang 2019).

미국의 변화된 공세에 대응하여 화웨이는 향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대응 전략을 동시에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중국의 방대한 국내 시장 규모는 화웨이 등 중국 기술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조치를 상당 기간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된다. 중국 정부 또한 2025년까지 중국의 5G 서비스 이용자 수가 전세계의 50%를 차지하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스마트폰의 경우,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0년 1분기 화웨이의 세계 시장 판매 대수는 7,260만대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다. 그러나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던 2018년 1분기 11.8%에서 2020년 미국의 제재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20년 1분기 17.8%로 증가하였다(Vendor Data Overview 2020).

한편, 화웨이의 2020년 1분기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33.9%에서 41.4%로 증가하였다("Apple, Huawei boost market share, as first-quarter China smartphone shipments fall: Canalys" 2020).⁶ 5G 통신 서비스 및 장비 시장은 시장 형성 초기에 있고 중국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5G 보급 속도가 빠른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2020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3억 2,600만대에 달하고, 이 가운데 5G 스마트폰의 판매 규모는 1억 3,700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2020년 3월 기준 세계 5G 스마트폰 판매 비중에서 중국이 약 70%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화웨이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단기적으로 미국과 주요국들의 제재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시아와 서구 국가들이 2021년부터 5G 통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중국의 5G 서비스 가입자 수가 2025년 8억 명까지 증가하여 세계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화웨이가 향후 4~5년 간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미국의 제재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Kawakami 2020).⁷

이러한 전략은 5G 통신 장비 부문에서도 발견된다. 2020년 4월 기준 중국 최대의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의 중국 내 28개 도시의 5G 서비스 무선 기지국 가운데 화웨이가 57.2%를 차지하고, ZTE와 다탕이 각각 28.7%, 2.62%를 차지하였다.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89%에 달한다. 해외 업체 중에는 에릭슨이 11.5%를 차지하였다. 2019년 6월 차이나 모바일의 1기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화웨이가 51.7%, ZTE가 3.1%를 차지한 것과 비교할 때,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약 27% 증가한 반면, 33.8%, 10.2%를 차지하였던 에릭슨과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약 32% 감소하였다. 차이나 모바일의 5G 2기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외국 기업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화웨이, ZTE, 다탕 등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증가한 것이다(곽예지 2020).⁸

중국은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을 중심으로 5G 통신 서비스 시장을 신속하게 확대함으로써 5G 네트워크 장비, 통신 서비스, 스마트폰 등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도 함께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2020년 중국 전역의 5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20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803억 위안(약 258억 달러)을 투자하여 5G 통신 서비스 이용자 수를 1억 2천만 명까지 확대할

⁶ 반면, 오포, 비보, 샤오미의 판매 대수는 각각 26%, 19%,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Apple, Huawei boost market share, as first-quarter China smartphone shipments fall: Canalys" 2020).

⁷ 스마트폰 세계 시장의 규모는 12억 4천만대로 중국 시장의 세계 시장의 약 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Apple, Huawei boost market share, as first-quarter China smartphone shipments fall: Canaly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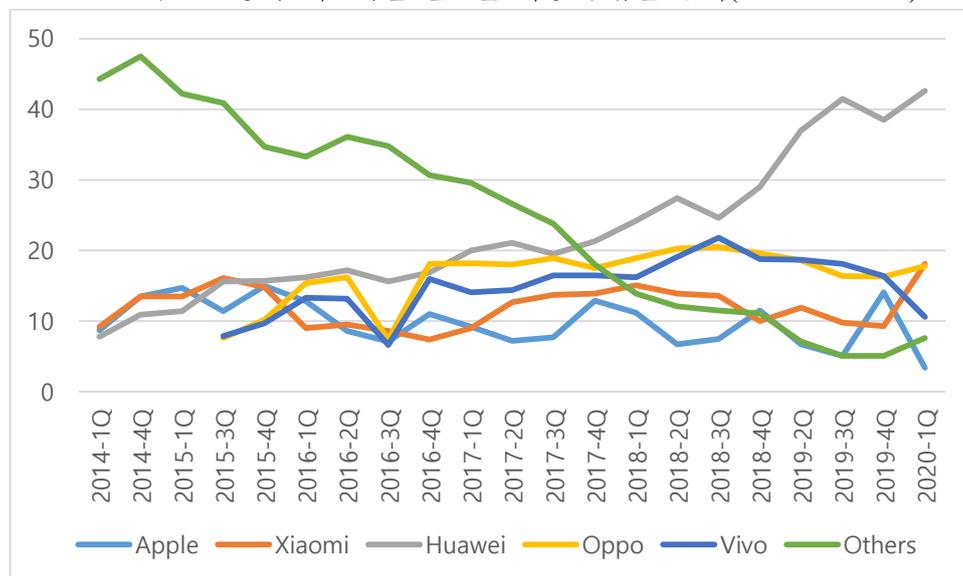
⁸ 화웨이가 노키아의 핵심 시장인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는 반면, 노키아의 중국 시장(대만 포함) 점유율은 6%에 불과하다(Satake 2020).

계획이다. 이를 위해 5G 무선 네트워크 기지국 약 30만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곽예지 2020).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다음 단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자급도를 높여 공급 사슬을 재편하는 작업을 가속화할 것이다.

2020년 1분기 5G 스마트폰 판매대수는 2,401만대이며, 삼성전자, 화웨이, 비보가 각각 830만대, 800만대, 290만대를 판매하였다(<그림 4> 참조). 시장 점유율로는 삼성전자 34.4%, 화웨이 33.2%, 비보 12.0%, 샤오미 12%, 오포 10.4%이다(“Huawei becomes most loyal brand in Android as market share grows rapidly” 2020). 2019년 4분기 스마트폰 제조사별 중국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 31.5%, 비보 18.1%, 오포 16.4%, 샤오미 9.8%, 애플 5.1%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7.8%였던 반해 삼성전자 19.9%, 애플 9.7%와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이다.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외국 기업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이다. 특히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Smartphone vendor market share in China 2014-2020”).

중국 소비자의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충성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웨이 스마트폰 이용자의 충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분기에는 2019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52.4%에 달했다. 반면, 화웨이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대체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1분기 22.2%에서 2020년 1분기 14.7%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2020년 1분기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는 53.3%로 2019년 1분기보다 10.3% 감소하였고, 화웨이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는 비율도 사상 최고인 26.5%까지 증가하였다(“Huawei becomes most loyal brand in Android as market share grows rapidly” 2020). 애플이 5G 아이폰을 아직 출시하지 않은 영향도 있으나, 미중 무역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는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이 미중 무역 전쟁의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웨이가 미국의 견제를 완충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 중국 제조사별 핸드폰 시장 점유율 변화(2014/1~2020/1)



출처: “Vendors' market share of smartphone shipments in China from 1st quarter 2014 to 1st quarter 2020”.

둘째, 중국 정부와 화웨이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일대일로 참여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유럽 시장에서 배제되더라도 화웨이는 중국 국내 시장,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의 대응 전략은 매출 구조에서 일부 발견할 수 있다. 2019년 화웨이는 트럼프 행정

부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1,230억 달러의 매출, 90억 달러의 순익을 기록하였다. 화웨이의 중국,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올린 매출 규모는 약 918억 달러로, 특히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거의 60%에 달한다. 중국 최대 통신 기업인 차이나 모바일은 2020년 말까지 5G 기지국을 약 30만개 설치할 계획이다. 미국 거대 통신 기업인 T-Mobile이 설치할 기지국 수가 8만 5천 개인 것과 비교하면 중국 시장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화웨이는 공급 사슬을 다변화하고 기술 자급도를 높이는 전략이 불가피하다. 미 상무부가 수출 통제 리스트를 확대하는 것은 화웨이의 공급 사슬 내에 있는 해외에서 생산된 컴퓨터, 통신, 전자, 반도체 관련 부품,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핵심 부품을 TSMC에 위탁 생산해왔고, 특히 스마트폰에 필요한 반도체의 90%를 TSMC에 의존하고 있는데, TSMC에 대한 접근 제한은 단기적으로 화웨이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다(Xie 2020).

화웨이는 상하이에 위치한 SMIC 등으로 반도체 생산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SMIC는 화웨이 제품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화웨이의 해외 공급 기업은 50여 개에 달하는데, 다른 기업들도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출 통제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정부 자금과 민간 자금을 결합하여 칩셋(chipset)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National Integrated Circuit Fund II와 Shanghai Integrated Circuit Fund II는 이미 15억 달러와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칩셋 개발을 위한 투자 계획 공표한 것이다(Xie 2020).

미국 5G 전략의 입체화

미중 5G 경쟁의 동학의 변화와 관련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째, 현 시점까지 나타난 미국과 중국의 5G 경쟁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를 대상으로 과감하게 제재의 수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피해의 비대칭성과 관련이 있다. 미국이 반 화웨이 전략을 실행하는 데 미국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의 공급 사슬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생산자인 화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 피해 규모의 비대칭성은 ‘상호의존의 무기화’를 현실화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된다(Farrell and Newman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현재와 같이 강력한 반 화웨이 전략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미국 기업, 특히 화웨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화웨이와의 거래를 허용해왔다. 실질적인 화웨이 제재 강도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낮은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 라이선스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반 화웨이 전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은 지금까지 ‘파이버 아이즈’(Five Eyes) 중심의 협력을 추구하던 데서 탈피하여, 협력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화웨이의 중국 정부와의 관계, 특히 민군 융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기존 전략을 고수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중국 경계론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활용하여 협력의 전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향후 반 화웨이 전선 확대에 관건이 될 것이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데, EPN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EPN은 미중 5G 경쟁으로 촉발된 공급 사슬의 재편과 화웨이 배제 결정을 하는 국가들 사이의 연대를 촉진하는 네트워크로서 기능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미국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EPN의 목표는 책무성, 투명성, 호혜성, 법치, 주권 존중, 인권 존중 등 신뢰 원칙에 기반한 모든 영역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번영을 실현하는 데 있다.

EPN의 핵심은 중국 견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공급 사슬의 재편을 도모하는 경제 파트너십

전략이다. EPN은 (1) 모든 참여국들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 (2) 공정하고, 투명하며, 호혜적인 협력과 경제 파트너십의 모든 영역으로 신뢰 원칙 확대; (3) 성실성, 호혜성, 책무성, 투명성, 공정성에 기반하여 기업, 경제권, 국가에 공정한 경쟁의 장 제공 등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PN을 통해 통합적이고 공정한 프레임워크를 형성하여 ‘신뢰 기반의 ‘지경학적 파트너십’(trusted geo-economic partnerships)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EPN은 미국 기업들에게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리쇼어링(Reshoring)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경우, 동지 국가들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대안을 제공한다. 비교적 최근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자국 기업의 피해를 감수하는 가운데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었다면, EPN은 자국 기업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안보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미국 정부가 EPN이 참여국들의 시너지를 확대·강화하는 수단이 되는 한편,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을 경험한 국가들의 리스트는 상당히 길다. 화웨이 경제론이 확산됨에 따라 5G 관련 중국 정부는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영국 정부가 화웨이의 참여를 재고하기로 결정하자, 주영국 중국 대사 류샤오밍(Liu Xiaoming)은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Crabtree 2020), 중국 정부는 영국 HSBC에 대한 보복과 영국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회수 등으로 다양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였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중국 정부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구축 참여를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Krach 2020).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EPN이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에 노출된 국가들은 상호 연대가 필요하며, EPN이 이러한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연대를 형성하고 유지할 때, 중국이 보복 위협을 가하는 행태를 지속하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미국 정책에 대한 일방적 협력을 요구하던 최근까지의 정책 기조와 차별화된다. 그 결과 다른 국가들과의 정책적 공조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은 D10(Democracies10)을 5G 장비와 공급 사슬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연합체로 활용하려는 구상의 일단을 밝힌 바 있다(Erik 2020). 존슨 정부가 5G 기술과 장비의 화웨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G7과 한국, 호주, 인도 등 민주주의 10개국으로 구성된 D10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Khanna 2020). 존슨 정부는 D10이 세계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내적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G 및 핵심 공급 사슬과 같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화웨이에 대한 재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⁹ D10은 트럼프 행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국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G7 AI 그룹에 참여하고 5G 위협에 대한 EU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등 협력의 토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넷째, EPN에 더하여 미국은 5G 경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국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추구해왔던 양자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모두 고려한 결과이다. 미국무부는 통신,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모바일 앱, IoT, 5G 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와 거래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류 국가들(like-minded countries)과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무부가 포함한 ‘5G 청정 네트워크(5G Clean Networks)’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5G 청정 네트워크는 신뢰성과 보안 수위를 판정할 수 있는 국제적인 ‘디지털 신뢰 표준(Digital Trust Standards)’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신뢰 표준은 2019년 5월 EU, NATO 회원국 등 약 30개국 대표들이 참가하여 5G 인프라의 설계, 건설, 관리와 관련 작성된

⁹ 영국 정부는 2020년 5월 제약 및 첨단 전자 제품의 대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방위 프로젝트’(Project Defend)를 출범시킨 바 있다(Hutt 2020).

‘5G 보안에 관한 프라하 프로포절(Prague Proposals on 5G security)’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US Department of State 2020).

다섯째, 미국은 5G의 안보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20년 4월 또한 국무부가 외교 업무와 관련하여 미국으로 송수신되는 5G 데이터를 위한 ‘청정 통로’를 의무화하는 ‘5G 청정 패스(5G Clean Path)’도 발표하였다. 화웨이와 ZTE 등 ‘신뢰할 수 없는 고위험 판매 기업’들이 이 통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최고 수준의 보안 표준을 구현함으로써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계획이다(US Department of State 2020).

여섯째,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참여하는 국제 표준 기구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다(Freifeld 2020). 미 상무부는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차세대 5G 네트워크 표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화웨이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실제로 스프린트, AT&T, FirstNet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 선전에서 열린 3GPP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Dano 2019).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국제 표준 설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어 화웨이가 국제 표준 설정을 주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최근까지 미국이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자성이 미국 내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우방국들과 협력을 통해 5G 관련 국제 표준과 규칙을 제정하는 국제 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화웨이와 중국 국영 기업들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화된 것은 이러한 배경이다. 이를 반영하여 미국은 주요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5G 국제 표준 설정을 주도하는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여 ‘개방 RAN 정책 연합(Open RAN Policy Coalition)’을 형성한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이 연합은 5G RAN 기술에서 중국에 대항하려는 미국과 우방의 시도로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Dano 2020b).

다만, 상무부가 5G 표준 제정을 위해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협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5G 분야에서 화웨이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 시점에서 미국은 국제적 호환성을 위협하는 5G 표준의 균열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5G 분야에서 미중 경쟁이 지속될 경우, 6G 시대에는 세계 표준이 양분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제 표준을 파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Doffman 2020).

한국의 대응 전략

지금까지 미중 5G 경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트럼프 행정부의 대 화웨이 전략의 강화와 화웨이 경제론의 부상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 거래 제한 수준을 높이고, 이를 외국 기업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견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또한 2020년 화웨이에 대한 경제론과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화웨이 전략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미중 5G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미중 5G 경쟁이 새로운 변화의 동학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 첫째, 단기적으로 한국은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데 따른 반사 효과를 신중하면서도 기민하게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5G 문제를 “누구를 신뢰하는가?”로 단순화시키고, 화웨이의 대안으로서 유럽의 에릭슨과 노키아, 한국의 삼성전자를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Krach 2020). 한국이 반 화웨이 공세의 전면에 나서는 데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화웨이 대안으로서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는 5G 청정 통신 기업으로 Telefonica, Orange, O2, Rogers, Telstra, Verizon, NTT, KDDI, Sprint, Bell, Optus, SK Telecom, Jio, Telenor, KT, Telia, Far EasTone, AT&T, Chunghwa Telecom, ice, GCI, elisa, Telus, Play 등 24개 기업들을 포함시키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0). 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회복탄력성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5G 청정 경로 구상(5G Clean Path initiative)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반 화웨이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

데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중 5G 경쟁은 공급 사슬의 재편을 수반한다. 한국은 공급 사슬의 재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압박을 반복적으로 요구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과정에서 제기된 공급 사슬 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급 사슬의 재편을 탈(脫)중국이 아닌 공급 사슬의 강건화와 다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 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공급 사슬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공급 사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들이 공급 사슬을 다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공급 사슬의 다변화의 큰 방향은 ‘중국 + α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공급 사슬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공급 사슬을 형성하기보다는 기존 공급 사슬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롭게 형성되는 공급 사슬을 중국 이외의 국가들로 다변화하는 것이 ‘중국 + α ’의 핵심이다. 한국이 ‘중국 + α ’ 전략을 추구할 경우, 이미 중국에 형성한 공급 사슬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EPN에 참여함으로써 중개자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중국 중심 공급 사슬과 미국이 주도하여 형성할 EPN 사이에서 연결 고리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결 고리로서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급 사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적 네트워크로서 EPN의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중국이 공급 사슬의 재편 과정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나가는 데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갈등이 지속된다는 것은 미중 양국의 상호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의존의 감소는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안보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미중 전략 경쟁을 위해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경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급 사슬의 재편은 단기적으로는 갈등의 수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재편 과정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사슬 재편 이후 미중 양국은 전략 경쟁을 지속함과 동시에 상호의존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양국은 공급 사슬의 재편을 계기로 ‘상호의존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에서 ‘관리된 상호의존(managed interdependence)’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공급 사슬의 재편은 양국의 상호의존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공급 사슬 재편의 과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스스로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급 사슬의 재편을 미중 사이의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거쳐 현재의 높은 수준의 균형에서 낮은 수준의 균형을 모색할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관리이다. 공급 사슬 재편이 과도하게 안보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보다는 한국은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확대함으로써 공급 사슬 재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곽예지. 2020. “40조 중국 5G 내수시장, 화웨이와 ZTE가 장악하나.” 4월 2일. <아주뉴스>.
<<https://www.ajunews.com/view/20200402144153845>>.
- “삼성전자, 5G 장비 4위...유럽 뚫은 화웨이는 다시 1위.” 2020/2/5. <중앙일보>.
- 이은정. 2019. “관리장성 안에 갇힌 화웨이 스마트폰.” ZDNet Korea. 6월 14일.
<<https://zdnet.co.kr/view/?no=20190613142558>>.
- “화웨이 다시 내수기업으로?...2년 연속 해외매출 비중 50% 밀돌아.” 2020. <조선일보>. 4월 1일.
- “Apple, Huawei boost market share, as first-quarter China smartphone shipments fall: Canalys.” 2020. Reuters. May 1. <<https://www.reuters.com/article/us-smartphone-sales-china/apple-huawei-boost-market-share-as-first-quarter-china-smartphone-shipments-fall-canalys-idUSKBN22D44U>>.
- Bajak, Frank and Michael Liedtke. 2019. “Huawei sanctions: Who gets hurt in dispute?” The Associated Press. May 21. <<https://www.usatoday.com/story/tech/news/2019/05/21/huawei-why-facing-sanctions-and-who-get-hurt-most/3750738002/>>.
- Barkin, Noah. 2019. “Europe’s backlash against Huawei has arrived.” Foreign Policy. November 29.
<<https://foreignpolicy.com/2019/11/27/europe-huawei-backlash-merkel-germany-summit/>>.
- Brattberg, Erik. 2020. “Forget the G-7, Build the D-10.” Foreign Policy. June 10.
<<https://foreignpolicy.com/2020/06/10/g7-d10-democracy-trump-europe/>>.
- Burkitt-Gray, Alan. 2020. “Exclusive: UK backing search for 5G and 6G alternative to Huawei.” June 8.
<<https://www.capacitymedia.com/articles/3825653/exclusive-uk-backing-search-for-5g-and-6g-alternative-to-huawei>>.
- Crabtree, James. 2020. Boris Johnson’s Remarkable U-Turn From Sinophile to China Hawk.” Foreign Policy. August 3. <<https://foreignpolicy.com/2020/08/03/boris-johnson-sinophile-china-hawk/>>.
- Dano, Mike. 2019. “Souring US-China Relations Could Cast Shadow Over 5G Standards-Setting Process.” <<https://www.lightreading.com/mobile/5g/souring-us-china-relations-could-cast-shadow-over-5g-standards-setting-process/d/d-id/750740>>.
- Dano, Mike. 2020a. “Study: Huawei was the biggest contributor to 5G standards.” March 17.
<<https://www.lightreading.com/5g/study-huawei-was-the-biggest-contributor-to-5g-standards/d/d-id/758279>>.
- Dano, Mike. 2020b. “US officials may avert 5G standards fragmentation.” May 6.
<<https://www.lightreading.com/5g/us-officials-may-avert-5g-standards-fragmentation/d/d-id/759453>>.
- Doffman, Zak. 2020. “Trump Vs Huawei Just Suddenly Changed—Here’s Why.” *Forbes*. June 16.
<<https://www.forbes.com/sites/zakdoffman/2020/06/16/trump-vs-huawei-just-suddenly-changed-heres-why/#264c9e976c3d>>.
- European Commission. 2019. EU-China – A strategic outlook.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and the Council.
- Feuer, Will. 2020. “Apple stock reaches all-time high after Chinese government data shows iPhone unit sales spike.” CNBC. January 9. <<https://www.cnbc.com/2020/01/09/apple-stock-hits-new-all-time-high-on-china-iphone-sales-data.html>>.
- Fitch, Asa and Kate O’Keeffe. 2020. “Qualcomm Lobbies U.S. to Sell Chips for Huawei 5G Phones.” August 8. *Wall Street Journal*.
- Freifeld, Karen and Chris Prentice. 2020. “Exclusive: U.S. drafts rule to allow Huawei and U.S. firms to work together on 5G standards – sources.” Reuters. May 6.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hina-huawei-tech/u-s-drafts-rule-to-allow-huawei-and-u-s-firms-to-work-together-on-5g-standards-sources-idUSKBN22I1ZY?feedType=RSS&feedName=technologyNews>>.
- “Gartner Survey Reveals Two-Thirds of Organizations Intend to Deploy 5G by 2020.” 2018. December 18.
<<https://www.gartner.com/en/newsroom/press-releases/2018-12-18-gartner-survey-reveals-two-thirds-of-organizations-in>>.
- “Huawei becomes most loyal brand in Android as market share grows rapidly.” 2020. cnTechPost. May 5.

- <<https://cnettechpost.com/2020/05/05/huawei-becomes-most-loyal-brand-in-android-as-market-share-grows-rapidly/>>.
- Hutt, David. 2020. "How China Is Dividing Britain's Tories." *Foreign Policy*. July 8.
<<https://foreignpolicy.com/2020/07/08/china-britain-conservatives-tories-5g-investment-europe/>>.
- Jiang, Sijia and Michael Martina. 2019. "Huawei's \$105 billion business at stake after U.S. broadside."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china-huawei-analysis/blacklist-mess-huaweis-105-billion-business-at-stake-after-u-s-broadside-idUSKCN1SM123>>.
- Kawakami, Takashi. 2020. "China closes in on 70% of world's 5G subscribers." *Nikkei Asian Review*.
<<https://asia.nikkei.com/Spotlight/5G-networks/China-closes-in-on-70-of-world-s-5G-subscribers>>.
- Keane, Sean. 2020. "Huawei ban timeline: FCC officially designates Chinese company a national security threat." June 25. <<https://www.cnet.com/news/huawei-ban-full-timeline-us-restrictions-china-military-trump-executive-order-fcc-security-threat/>>.
- Khanna, Aditi. 2020. "UK plans new 5G club of 10 democracies, including India: Report." May 29.
<<https://www.livemint.com/>>.
- Kharpal, Arjun. 2020. "After Pompeo says 'tide is turning against Huawei,' India reportedly weighs 5G ban on Chinese firm." *CNBC*. June 30. <<https://www.cnbc.com/2020/06/30/india-reportedly-weighs-5g-ban-on-huawei-amid-tensions-with-china.html>>.
- Krach, Keith. 2020. "Under Secretary Keith Krach Briefs the Press on Huawei and Clean Telcos." June 25.
<<https://www.state.gov/telephonic-briefing-with-keith-krach-under-secretary-for-economic-growth-energy-and-the-environment/>>.
- Landler, Mark. 2020. "Boris Johnson Pledges to Admit 3 Million from Hong Kong to U.K." *The New York Times*. June 3. <<https://www.nytimes.com/2020/06/03/world/europe/boris-johnson-uk-hong-kong-china.html>>.
- Lorel, Morris. 2019. "China's Rigged Telecom Market Keeps Nordic Firms in Huawei's Shadow." *News Editor*. October 22. <<https://www.lightreading.com/asia-pacific/chinas-rigged-telecom-market-keeps-nordic-firms-in-huaweis-shadow/a/d-id/755034>>.
- Lorel, Morris. 2020. "Ericsson, Huawei & Nokia's 5G 'wins' are no big deal." *News Editor*. February 24.
<<https://www.lightreading.com/5g/ericsson-huawei-and-nokias-5g-wins-are-no-big-deal/a/d-id/757677>>.
- Malnick, Edward. 2020. "Exclusive: Huawei faces 5G ban in Britain within months: Boris Johnson expected to order about-turn with GCHQ set to raise new security fears over Chinese technology." *Telegraph*. July 4.
<<https://www.telegraph.co.uk/politics/2020/07/04/huawei-faces-5g-ban-within-months/>>.
- McCabe, David . 2020. "The F.C.C. decision is part of a continuing campaign against Chinese firms that make telecommunications gear." *The New York Times*. June 30.
- Mingas, Melanie. 2020. "Global telecom equipment market up 2% in 2019."
<<https://www.capacitymedia.com/articles/3825153/global-telecom-equipment-market-up-2-in-2019>>
- Morra, James. 2019. "5G Could Restart Growth in Smartphone Market by 2020."
<<https://www.electronicdesign.com/technologies/embedded-revolution/article/21808533/5g-could-restart-growth-in-smartphone-market-by-2020>>.
- Pham, Sherisse. 2020. "How much trouble is Huawei in?" *CNN Business*. July 4.
<<https://www.cnn.com/2020/07/04/tech/huawei-5g-india-europe-intl-hnk/index.html>>.
- Pompeo, Michael. 2020. "Secretary Michael R. Pompeo At a Press Availability." April 29.
<<https://www.state.gov/secretary-michael-r-pompeo-at-a-press-availability-4/>>.
- Rana, Pradumna B. 2020. "Trade Multilateralism: Alive and Well Despite Trump." *RSIS Commentary*. No. 147. July 20.
- Richter, Felix. 2020. "The Size of Apple's China Business." February 18.
<<https://www.statista.com/chart/13246/apple-china-revenue/>>.
- Rogers, Mike. 2020. "The right frame of reference for 5G." *The Hill*. March 13.
<<https://thehill.com/opinion/technology/487437-the-right-frame-of-reference-for-5g>>.
- Sanger, David E. and David McCabe. 2020. "Huawei Is Winning the Argument in Europe, as the U.S. Fumbles to Develop Alternatives." *The New York Times*. February 17.

- Satake, Minoru. 2020. "China Mobile promotes its 5G services at the World Internet Conference in Zhejiang province last October. China has invested huge amounts in 5G infrastructure." Nikkei Asian Review. June 4. <<https://asia.nikkei.com/Spotlight/Huawei-crackdown/Nokia-hopes-for-slice-of-5G-pie-on-Huawei-s-home-turf>>.
- "Smartphone vendor market share in China 2014-2020."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30749/china-smartphone-shipments-vendor-market-share/>>.
- "Smartphones Market - Growth, Trends, and Forecast (2020-2025)."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industry-reports/smartphones-market>>.
- US Department of State. 2020. "5G Clean Networks." <<https://www.state.gov/5g-clean-networks/>>.
- Vendor Data Overview. 2020. "Smartphone Market Share." June 22. <<https://www.idc.com/promo/smartphone-market-share/vendor>>.
- Whalen, Jeanne. 2020. "U.S. tries to narrow loophole that allowed China's Huawei to skirt export ban." Washington Post. May 16.
- Wollenhaupt, Gary. 2020. "4 ways 5G is set to transform supply chains." October 22. <<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5g-transform-logistics-supply-chain/565491/>>.
- Xie, John. 2020. "Huawei Says 'Survival' at Stake After New US Sanctions." VOA. May 22. <<https://www.voanews.com/east-asia-pacific/huawei-says-survival-stake-after-new-us-sanctions>>.
- "5G Smartphone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2020/5. <<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5g-smartphone-market>>.

■ **저자: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통상의 국제정치,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이승주 편), “Institutional Balancing and the Politics of Mega FTAs in East Asia,”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공편),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공편)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j.baek@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8월 13일

“[스페셜리포트] 미중 5G 경쟁 2.0과 한국: 다변화 전략과 중견국 외교” 979-11-6617-004-1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EAI

EAST ASIA INSTITUTE